

4. 마을의 특징

1) 명계서원(明溪書院)

명계서원은 1671년(현종 12)에 울진 유림이 대해(大海) 황응청(黃應淸)[1524~1605]과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1556~1622]을 배향한 서원이다. 1868년(고종 5)에 훼손되었으며, 1881년(고종 18)에 유림이 유지(遺址)에 강학소를 세우고 향촌의 교육을 담당했다. 1982년에 지방 유림에서 강당인 상교당(尙敎堂)과 사당인 덕유사(德裕祠)를 복설하였다. 황응청은 1552년(명종 7)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594년(선조 27) 장원서별제(掌苑署別提)를 제수받고 시폐(時弊) 4조를 논한 상소를 올렸으며 진보현감으로 덕정을 펼쳤다. 월천(月川) 조목(趙穆)[1524~1606]과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1538~1609] 등 당대의 지성들과의 교류했다.

2) 태사봉(太師峯)

황서(黃瑞) 선생이 살던 뒷산을 황서(黃瑞) 선생의 관지태사(官至太師)를 따서 태사봉(太師峯)이라 하고 있다.

3) 탁계곡(卓溪谷)

정명(正明) 뒷골이 너무 터져 있으므로 김탁계(金卓溪) 선생이 골(谷) 앞에 미루나무를 심어 골을 막았다 하여 탁계곡이라 하고 있다.

제14절 정명2리(正明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봉산리(峰山里)가 있고, 서쪽은 산(山)을 넘어 조갯골(朝官谷)을 지나 황보리(黃堡里)가 있으며, 남쪽은 황보2리(黃堡二里)와 연결되고, 북쪽은 척산리(尺山里)와 연결된다. 마을회관은 2011년에 신축되었다.

2. 마을의 역사

정명2리(正明二里)는 어리(於峴), 섭실(薪谷), 뱀골(蛇谷) 3개의 마을로 형성되어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3개 마을이 합해져 정명2리(正明二里)로 되었다.

1) 뱀골(蛇谷)

마을이 뱀 같이 길게 형성(形成)되어있다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2) 섭실(薪谷)

약 300년 전에 순흥 안씨(順興安氏)가 작은 계곡(溪谷)을 개척할 때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섭실(薪谷)이라 한다.

3) 어티(於峴)

약 500년 전에 김녕 김씨(金寧金氏)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으므로 고개 가운데에 마을이 생겼다 하여 어티(於峴)라 한다.

3. 가구 분포

총 39세대가 거주하며 김녕 김씨(金寧金氏), 안성 이씨(安城李氏), 순흥 안씨(順興安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찬물밭

마을을 개척할 때 찬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하고 찬물밭이라 하였다. 이 샘은 피부병과 위장병에 좋다 하여 지금도 여름이면 인근 마을에서 찾아온다.

제15절 척산리(尺山里 : 1·2·3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기성리(箕城里)와 동해(東海)가 있고, 서쪽은 정명천(正明川) 상류가 흐르고 있으며, 남쪽은 탕건봉(宕巾峯)으로 둘러싸이고, 북쪽은 사동리(沙銅里)와 인접하고 있다. 뒷산은 금장산(金藏山) 지맥(支脈)이 동쪽으로 뻗어 망질봉(望侄峯)이 되었다. 마을회관은